

# “원시적인 매력 느낄 수 있는 남만도기 한자리에서 감상해요”

## 영암도기박물관, 하정웅도자컬렉션 <나카가와 이사쿠의 무유도기>전 개최

영암도기박물관은 하정웅도자컬렉션 중 남만도기의 매력을 알 수 있는 <나카가와 이사쿠의 무유도기>를 주제로 한 박물관 소장품전이 오는 11월 30일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키나와의 남만도기를 창작 모티브로 한 나카가와 이사쿠(中川伊作, 1899~2000)의 무유도기전으로 고대의 무유도기처럼 소박하고 심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소지의 본질적인 색상이 기면에 나타나고 흙 본연의 색상을 살피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걸쳐 류큐, 삼, 자바 등 남쪽 여러 민족을 남만이라고 하였는데, 류큐왕국에 속했던 오키나와의

무유도기(荒焼 아라야키)는 착색되지 않고 흙이 불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색되어 소성되며 미묘하게 왜곡되어 비대칭적인 형태가 독특한 장식성을 지닌다.

일본의 저명한 판화가이자 도예가인 나카가와 이사쿠는 영암의 붉은 흙과 같은 오키나와의 붉은 흙에 독창적인 목판화 기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무유도기의 세계를 연 남만도기 작가이다.

특히 오키나와의 붉은 흙에 그 지역의 토산물인 해초, 소금, 산호초, 사철, 진주, 산양똥 등을 사용하여 강한 산화염에서 불을 순간적으로 멈춰 다양한 요변을 추구한 남만도기의 기법은 기존의 실용적인 틀에서 벗어나

원시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하며 조형미있는 예술 세계를 창조하였다.

박물관 관계자는 “하정웅컬렉션은 개인소장가가 수집한 컬렉션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양적, 질적인 면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하정웅컬렉션 중 도자 작품을 소장·전시중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하정웅도자컬렉션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암은 1,200년의 역사를 갖는 국내 최초의 고화도 시유도기의 고장으로 원시도기의 맛을 표현한 이번 전시를 통해 도기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암=조대호기자



## “의자가 편해요” 신안군, 음식점 입식 문화 확산

관내 음식점 438개소 중 204곳 교체...호응도·만족도 UP



신안군이 추진한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군은 관내 음식점 438개 업소 중 204개

소가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교체율 47%로 두 개 업소 중에 한 개 업소는 입식으로 바꾼 셈이다.

신안=이덕주기자

## 함평군, 제4회 함평음악협회 정기음악회 개최

함평군이 지난 19일 함평엑스포공원 주례영상관에서 '제4회 함평음악협회 정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음악회는 함평군과 (사)한국예술

문화단체총연합회 함평지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평지회와 (사)함평음악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공연은 현악 4중주를 시작으로 테너,

클라리넷, 플룻, 소프라노 현악4중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클래식 무대를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플립의 '모든 날 모든순간', 김광진 '편지' 등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곡과 '박연폭포' 등 경기도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 무대가 어우러졌다.

함평=김광준기자

## 목포시, 동절기 도로제설 대비 태세 구축

제설장비 13대·제설제 545톤·모래주머니 2만6천개 준비

목포시가 동절기 도로제설 대비 태세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 22일 청호대교 아래에 위치한 제설장비 차고지에서 박홍률 시장 주재로 도로제설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설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사전 대비를 위해 제설 구역 전면 재조사, 도로별 제설대책, 제설 자재·장비 확보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동절기 도로제설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제설 대상 구간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고갯길 등 228.6km로 시는 오는 내년 3월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가 보유한 제설장비는 제설차량 6대, 살포기 5대, 염수제조기 1대, 자동염수분사기 1대 등 총 4종 13대로 폭설시에는 굴삭기 등을 별도로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제설차량을 주요 구간에 투입하고,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에는 소형제설기 5대를 투입해 취약구간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금 266톤, 염화칼슘 279톤 등 제설제 545톤과 모래주머니도 2만6천개를 준비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무안군, 청년농업인 양성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무안군은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 청계면에 위치한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1,404㎡규모의 연동 스마트온실로 조성돼 양액재배 시설,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 난방시설 등을 갖췄으며, 현재 2명의 청년농업인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임차인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본인의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직접 영농계획을 세우고 재배,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의 농업경영을 실

습하고 수행한다.

군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영농기술지도와 현장컨설팅, 임대농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 있다.

김산 군수는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통해 농업 신기술을 습득하고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